

# 統一初 新羅-日本 교류와 ‘東萊斷層’路\*

서영교\*\*

## | 목 차 |

- I. 머리말
- II. 釜山港과 對馬島
- III. 新羅와 日本의 외교적 접근
- IV. 日本사절단의 入京과 東萊溫泉·靈鷲寺
- V. 맺음말: 신라왕실과 부산항

## | 국문초록 |

물자 수취에 있어 수로 운반의 효율성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신라는 울산항을 주로 이용했다. 하지만 대일교섭에 있어서는 부산항을 이용했다.

통일 후 구백제 지역은 그야말로 왕실·진골귀족·大寺刹의 재산이 집중된 곳이다. 신라가 백제를 정복하면서 획득된 이 지역은 신라지배층들에게 재분배되었다. 그 곳에서 생산된 잉여물의 상당량은 서해→남해→동해를 통해 울산항에 하역되어 왕경으로 운반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서남해안에서 동해안으로 들어서는 항로가 쉽지 않다고 해도 수도가 가까운 곳에 있는 울산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화물운송과는 달리 國書나 고가의 물품을 소지한 양국사절의 항해에는 안전이

\* 본 논문은 부산광역시에서 개최한 “부산항 개항역사 재조명 국내 심포지엄”(2020년 11월 20일)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임.

\*\* 중원대학교 한국학과 교수 / [syk367@naver.com](mailto:syk367@naver.com)

## 2 항도부산 42

우선시 되었고, 부산항이 이용되었다. 이유가 있었다. 첫째 對馬島가 일본의 출입국 창구였다. 다음으로 남쪽에서 東北北 방향으로 흐르는 동안난류의 방향 때문에 울산에서 對馬島로 향하는 항해는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부산과 對馬島 사이의 항로는 안정적이었다. 조선 초 對馬島에 개방한 삼포(乃而浦[진해 熊川]·釜山浦[부산]·鹽浦[울산]) 가운데 倭船의 부산포 편중은 심각했다. 조선정부는 三浦分泊 준수를 對馬島에 강력히 요구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對馬島와 부산 사이의 항로가 그만큼 접근성이 높았던 것이다.

전성기 금관가야의 김해가 국제무역항이 아니라 외항이 따로 있었다. 그것은 부산 대다포(多多羅)였다. 末期欣 탈출 후 왜군이 신라의 양산을 공격하기 전 먼저 상륙한 踏躡(津)을 일본말로 읽으면 타타라(鐵)노츠(津)이고 그것은 多多羅와 음이 통한다. 그곳은 금관가야가 일본열도로 철을 수출하던 浦口였다. 김해의 금관가야도 부산에 외항을 두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843년 對馬島 북쪽 해안을 지키던 일본 防人들이 저녁에 부산방향에서 반짝이는 불빛을 목격했다. 그것은 남해안에서 동해안(울산)으로 북상하는 신라 배들의 안전한 항해를 위한 烽火였을 가능성이 높다. 통일 직후에 신라와 일본 사이의 교류가 한창일 때 그 불빛은 對馬島에서 부산으로 오는 배들의 길잡이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양국의 활발한 교섭의 계기는 이리했다. 672년 羅唐戰爭이 한창이던 때 일본에서 내란(壬申亂)이 일어났다. 天智계가 밀려나고, 天武가 정권을 잡았다. 신라에 대해 적대적인 백제인들을 주변에 두고 있던 天智의 아들 大友皇子가 제거되었다. 등 뒤에 있는 일본열도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신라에게 도래했다. 그해 11월 신라는 사절을 파견하여 天武의 신정권을 인정했다.

673년 5월 15일 天武의 즉위를 축하하는 신라의 사절단이 일본으로 향했고, 675년 2월 新羅 文武王은 王子 忠元을 天武에게 파견하였다. 忠元은 4개월 간 奈良의 飛鳥에 머물렀고, 天武天皇을 만난 자리에서 성대한 외교적 儀禮를 행했다.

당시 신라와 일본의 이해는 일치했다. 唐과 전쟁 중인 신라는 등 뒤 일본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려고 했고, 일본은 신라가 唐이 팽창하는 것을 저지하는 방과제가 되어주길 원했다. 683년 忠元이 東萊斷層(부산 동래→울산→王京)을 따라 북상한 기록이『삼국유사』에 보인다. 여기서 부산에 입항한 일본사절의 王京으로의 移動路程이 드러난다. 부산항에 내려 북상하면서 일본 사절이 첫 번째 들린 곳은 東萊 溫泉이고, 여기서 자고 다시 출발한 그들은 노포동을 경유하여 울산 靈鷲寺에서

하루를 묵고, 王京으로 향했던 것으로 보인다.

靈鷲寺址에 대한 발굴이 행해졌다. 울산박물관은 5개년계획으로 발굴조사를 시행해, 2016년 12월 23일 완료하여 가람의 전모가 드러나 영축사의 사역 규모가 경주 感恩寺와 거의 동급임이 밝혀졌다. 무엇보다 講堂址와 그것을 둘러싼 주거공간으로 보이는 다수 건물터들을 확인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1~3차 조사에서 강당지 동편의 방 구조 건물지가 확인되어 승방으로 추정했는데, 서편과 북편에서도 중복이 심한 다수의 건물지가 발견됐다.

필자는 靈鷲寺의 주거공간들은 入京하는 일본사절들의 숙박시설을 겸했다고 보고 싶다. 703년의 入京한 일본사절의 규모는 204명에 달했다. 울산이 신라 왕경의 물류항구였다면 통일초 부산은 일본과 교섭하는 외교의 항구였다.

핵심어 : 釜山港, 蔚山港, 對馬島, 金忠元, 東萊溫泉, 東萊斷層, 靈鷲寺

## I. 머리말

統一初 신라와 日本 사이에는 활발한 교류가 이어졌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양국의 교류에 어느 항구를 사용했는지 깊게 고려하지 않았다. 막연히 울산항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영호도 그러했다. 하지만 관문성 서쪽 편(東萊斷層北端)에 關門洞이란 지명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고민을 남겼다. 그 요지는 이러하다. “울산항으로 향하는 관문성 동쪽(蔚山斷層 쪽)에 남아 있어야 할 지명인데 왜 서쪽에 있는가. 울산만에서 동천을 따라 북상하여 毛火를 거쳐 경주로 가는 것이 탄탄대로인데, 정작 關門洞은 울산灣으로 직행하는 길목이 아니었다.”<sup>1)</sup> 關門洞의 위치는 신라가 東萊斷層路를 중시한 흔적이 아닐까.

최근에 울산이 신라의 外港이라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되었다. 김창

1) 정영호, 『新羅 關門城에 대한 小考』, 『古文化』 15, 1977, 9~10쪽.

석은 울산 반구동 유적에서 확인된 집안시설과 부속 건물지 등에서 단서를 얻어 고대 울산항의 위치와 기능을 언급했다. 于尸山國(울산)이 斯盧國에 복속된 이후 신라는 栗浦라는 外港을 확보하게 되었고, 외항은 어민들이 배를 정박하거나 조세를 운송하는 중간 기착지로 이용되던 內港과는 달리 국가 대외활동의 창구 역할을 했다고 한다. 또 신라는 栗浦 인근에 출입국 수속, 인사 접대 등을 위해 屈歇驛을 설치해 행정적으로 통제했는데, 이는 놀지마립간 때 박제상이 栗浦에서 倭로 출항했고 未斯欣이 귀국할 때 屈歇驛에서 백관이 영접했다는 『三國遺事』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했다.<sup>2)</sup>

박제상이 栗浦에서 倭로 향한 『삼국유사』의 기록을 근거로 하여 울산이 신라의 외항이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신라의 백관이 未斯欣을 맞이한 屈歇驛은 蔚山斷層이 아니라 東萊斷層路 축선인 것이다.

『三國史記』 卷34, 雜誌 地理에서 “河曲縣은 婆娑王 때 屈阿火村을 취하여 縣을 설치하였는데, 景德王 때 阿曲으로 개명하여 지금이 蔚州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三國遺事』 卷5, 遯隱8 朗智乘雲普賢樹에는 “阿曲의 曲자를 西자로 쓰기도 했고 또한 求佛, 屈弗이라고도 했다.” 라는 註解가 있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三國遺事』 卷3, 塔像4 靈鷲寺 조에도 屈井驛·屈井縣官에 도착한 忠元公의 기록이 나온다.

지금도 울산시 무거동과 범서읍에 屈火라는 지명이 남아있다. 屈阿火村은 울산의 옛 지명으로 屈弗, 屈火, 屈歇, 屈井으로 불린 듯하다. 屈井縣官 터에 세워진 靈鷲寺(址)는 울산 청량읍 울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곳은 東萊斷層路 축선에 있다. 태화강 남쪽 편의 屈火里도 마찬가지로

2) 김창석, 「삼국시기 신라 外港의 변천과 그 배경」, 『島嶼文化』 45, 2015, 17~18쪽; 「대외 교류를 통해 본 고대 울산 지역」, 『대외교류를 통해 본 울산』, 울산대극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 학술회의, 2019.

이다. 그러나 집안시설이 발굴된 반구동 유적<sup>3)</sup>은 蔚山斷層路의 남쪽 끝 자락이다. 왕경으로 향하는 다른 두 길을 묶어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까. 왜국에서 탈출한 未斯欣이 울산항에 입항했다면, 반구동에 내려 동천이 흐르는 蔚山斷層을 타고 곧장 북상하여 入京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를 맞이한 곳은 東萊斷層路上에 있는 屈井驛·屈歇驛이었다.<sup>4)</sup> 굳이 태화강을 거슬러 올라가 屈火에 내려 20리를 돌아갈 필요가 있겠는가? 더구나 屈井驛·屈歇驛의 경우 태화강 남쪽 4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서울에서 내려와 경주에 들린 朝鮮通信使들 가운데 울산에 가서 對馬島行 배를 탄 기록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모두 東萊斷層路를 따라 내려가 釜山港에서 渡日했다. 조선시대의 이러한 사례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東萊斷層 북단부는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동남쪽으로 약 15km 떨어진 외동읍 구어리 일대이다.<sup>5)</sup> 외동(毛火) 부근에서 시작되어 현재의 범서 IC를 지나 태화강을 건너 울산 屈火리에 이른다. 여기에서 울주 청량(屈井·屈歇)과 웅촌 및 웅상을 거쳐 부산 노포동으로 이어지고 동래와 서면을 지나 영도가 바다다 보이는 부산항에서 끝이 난다.<sup>6)</sup>

- 
- 3) 蔚山 中區 伴鷗洞 遺蹟(2006.12~2008.5)에서 통일신라의 성곽 및 항구의 배후시설이 나왔다고 한다.
  - 4) 김창석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未斯欣을 屈歇‘驛’에서 영접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屈歇, 즉 屈阿火에 487년 이후 驛이 설치되었는데, 『三國遺事』 기록의 근거가 된 자료에는 그 명칭을 놀지대에 소급하여 屈歇‘驛’으로 기록했다고 보인다. 그러나 놀지마립간 때인 5세기 초 이전에 이곳에 驛의 기능을 하는 시설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屈阿火는 현재의 울산 범서읍 굴화리에 비정되는데, 이곳은 경주로부터 태화강을 따라 울산만으로 이어지는 교통로 상에 있기 때문이다.”(김창석, 『삼국시기 신라 外港의 변천과 그 배경』, 『島嶼文化』 45, 2015, 17쪽.)
  - 5) 황학수 외,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일대 동래단층 연장성 확인을 위한 물리탐사 적용』, 『지질공학』 27-3, 2017, 207~215쪽.
  - 6) 이광률 외, 『동래 단층 중부 지역 웅촌-웅상 일대의 단층 지형과 지형발달』, 『한국지형학회지』 26-1, 2019, 81쪽 그림1.

이와 관련하여 『三國遺事』 卷3, 塔像4 靈鷲寺 조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675년 日本에 다녀온 金忠元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683년 王京인 경주에서 東萊까지 내려와서 溫泉을 한 그가 다시 돌아갈 때는 靈鷲寺(울주군 청량면 울리 822번지)를 들러 歸京했다.<sup>7)</sup>

우리는 여기서 金忠元의 왕복코스가 東萊斷層路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三國史記』 卷44, 居道傳은 東萊斷層路和 관련하여 주목되는 기록이다. 신라 탈해이사금 때 변방 관리 居道가 기발한 책략을 발휘한다. 신라군이 張吐의 들판에서 말 타기 놀이를 하는 척하다가 于尸山國(울산)과 居柒山國(동래)을 일시에 급습하여 동시에 멸망시켰다는 것이다.<sup>8)</sup>

경주에 본거지를 두고 있던 신라가 남쪽으로 팽창하는데 있어 東萊斷層 등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왕경(경주)에 본거지를 둔 신라의 장군 居道가 騎兵을 이용하여 단층으로 연결된 于尸山國(울산)과 居柒山國(동래)을 동시에 점령했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統一初 신라와 日本의 교류에 東萊斷層路가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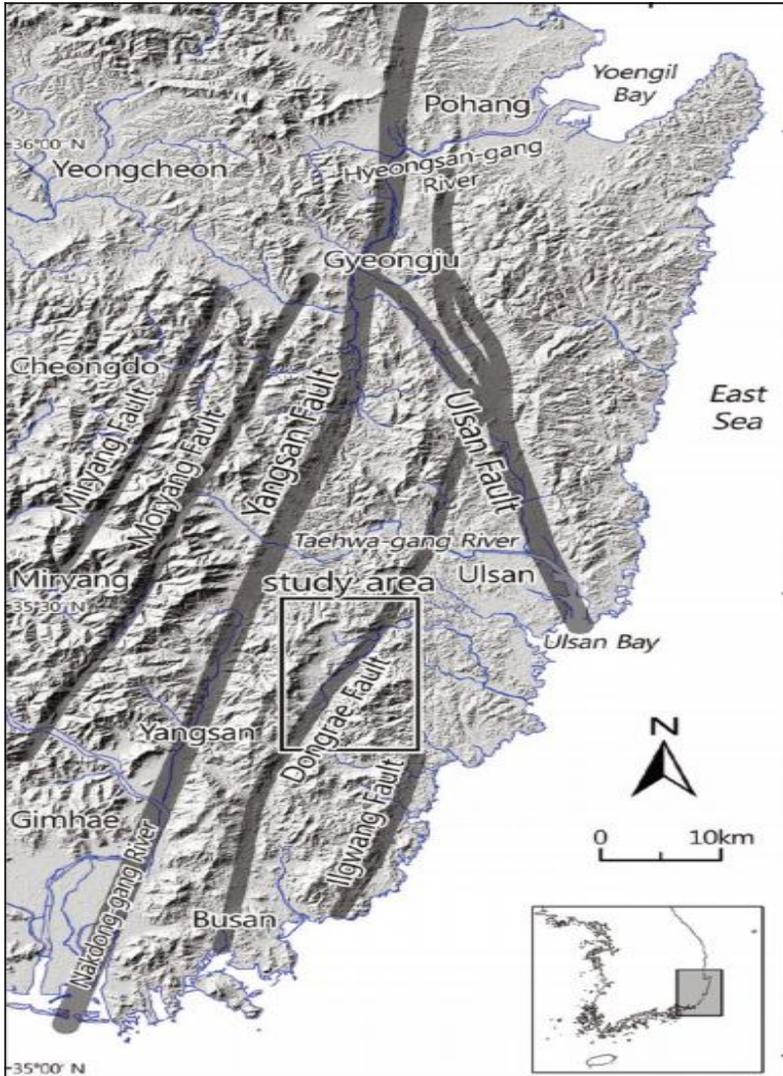
하지만 金忠元이 日本에 다녀온 것은 675년이고, 그의 溫泉旅行(東萊 溫川→靈鷲寺→歸京)은 683년의 사실이다. 두 사실이 다른 시간대이기 때문에 곧장 연결시키기 어렵다. 정확히 말해 遣倭使로서 金忠元이 배

7) 濱田耕策, 『新羅人の渡日動向：七世紀の事例』, 『史淵』 138, 九州大學大學院人文科學研究院, 2001, 86쪽 참조.

8) 『三國史記』 卷44, 居道傳. “居道, 失其族姓, 不知何所人也, 仕脫解尼師今, 爲干. 時, 于尸山國·居柒山國, 介居隣境, 頗爲國患. 居道爲邊官, 潛懷并吞之志, 每年一度, 集群馬於張吐之野, 使兵士騎之, 馳走以爲戲樂, 時人稱爲馬叔. 兩國, 習見之, 以爲新羅常事, 不以爲怪. 於是, 起兵馬, 擊其不意, 以滅二國.”

『三國史記』 卷34, 雜志3 地理1을 보면 東萊郡은 본래 居柒山郡이었다고 한다. “東萊郡, 本居柒山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二: 東平縣, 本大甌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機張縣, 本甲火良谷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高麗史』 志 卷11, 東萊縣 조를 보면 “본래 新羅의 居柒山郡으로, 景德王 때 東萊郡으로 고쳤으며, 고려 顯宗 9년(1018)에 蔚州에 來屬되었고, 뒤에 縣令을 두었는데 溫泉이 있다.”라고 한다. 고려시대에 東萊가 蔚州에 속해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접근성이 좋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東萊斷層은 부산항에서 북상하여 경주 외동에서 울산단층과 만난다. 부산과 경주 사이의 자연교통로이다.

(이광률 외, 『동래 단층 중부 지역 웅촌-웅상 일대의 단층 지형과 지형발달』, 『한국지형학회지』 26-1, 2019, 81쪽 그림1).

를 탄 항구가 부산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로는 불충분하다.

이에 필자는 먼저 日本의 출입국 창구로서 對馬島에 대해 살펴보고 부산항과 對馬島 사이의 접근성에 대해 검토해보겠다. 다음으로 日本과의 교류가 활발해진 배경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日本사절의 入京路程에서 동래온천과 울산 靈鷲寺가 어떠한 기능을 했는지 생각해보았다.

## II. 釜山港과 對馬島

古代에 國家가 등장한 이후 많은 변화가 생겼다. 국가 이전에 동남해안 지역 사람들이 日本列島와 각기 자유로운 교역을 했다는 것은 고고학 자료로 입증되 된다. 하지만 국가가 통제력을 발휘하면서 그 창구는 일원화 되었다. 고대 일본의 입국창구는 對馬島였다. 명확한 사례가 있다.

(天智天皇 10년[671] 11월 10일) 對馬國司가 筑紫의 大宰府에 사신을 파견하여 말하였다. 이번 달(11월) 2일에 沙門 道文·筑紫君薩野馬·韓鳴勝娑婆·布師首磐 4인이 와서 말하기를 唐國使人 郭務棕 등 600人, 送使 沙宅孫登 등 1,400人, 합 2,000인이 船 47척에 나누어 타고 比智鳴에 정박하여 서로 말하기를, “지금 우리 무리들이 갑자기 도착하면 저들이 놀라(對馬島의) 防人이 射戰할 것이다. 道文 등을 파견하여 우리가 來朝한 뜻을 알리자.”<sup>9)</sup>

9) 『日本書紀』卷27, 天智天皇 10년(671) 11월 癸卯(10일). “對馬國司遣使於筑紫大宰府言.月生二日.沙門道文.筑紫君薩野馬.韓鳴勝娑婆.布師首磐.四人從唐來曰.唐國使人郭務棕等六百人.送使沙宅孫登等一千四百人.合二千人.乘船冊七隻俱泊於比智鳴.相謂之曰.今吾輩人船數衆.忽然到彼恐彼防人驚駭射戰.乃遣道文等豫稍披陳來朝之意.” 앞의 기록은 백제의 倭國 입국 항로와 관련한 일급 사료이다.



<그림 2> 671년 11월 10일 郭務棕과 2,000인 47척에 타고 比智嶋에 대기, 사신을 對馬島에 파견하여 입국허가 신청, **필자제작**

671년 10월경 熊津都督府의 郭務棕은 배 47척에 2,000명을 태우고 금강을 빠져나왔다. 백제에 존재했던 唐나라 구성원들이 신라의 공격을 받고 왜국으로 탈출을 한 것이다.<sup>10)</sup> 서해안을 따라 남하하다가 珍島 부근에서 뱃머리를 동쪽으로 돌려 高洪반도와 여수 앞바다, 남해도를 지나 10월 말이 되어 比智嶋(통영 남쪽 比珍島)<sup>11)</sup>에 일단 정박했던 것으로 보인다.

郭務棕 등은 그 섬에서 倭國에 입국할 뜻을 알리기 위해 對馬島에 사림(道久)을 보냈다. 정상적으로 허락을 받지 않고 입항하면 對馬島 防人の 공격을 받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출입국에 있어 일본 국가의 통제력

10) 李道學, 『熊津都督府의 支配組織과 對日本政策』, 『白山學報』 34, 1987.

11) 연민수외, 『역주일본서기』 3, 동북아재단, 2013, 377쪽, 註 354.

이 강력히 발휘되고 있었다.

11월 2일 道久 등이 對馬島에 도착하여 입국허가를 요청하는 서신을 전했고, 그것을 받은 對馬島의 관리는 즉시 배를 타고 筑紫로 가서 大宰府에 보고했다. 大宰府는 近江으로 파발을 보냈고, 11월 10일에 對馬島의 보고가 近江조정에 도착했다.<sup>12)</sup>

對馬島의 보고가 近江조정에 도착하는데 8일이 소요되었다. 입국허가 전달에는 더 시간이 필요했다. 그들의 입국여부를 놓고 近江조정에서 논의를 해야 했을 것이고, 近江→大宰府→對馬島→比智嶋로의 전달에도 시간이 필요했다.

당시 天智의 病患이 위중했고, 12월 사망했다.<sup>13)</sup> 해를 넘긴 어느 시기에 郭務棕과 2,000人은 對馬島에 도착했을 것으로 보이며, 672년 3월 18일 이전에 筑紫 땅을 밟았다.<sup>14)</sup> 그 시대에 신라의 사절도 對馬島를 통해 입국절차를 밟았고, 나라(奈良)조정의 허가를 받고 입국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신라의 출입국 항구는 어디인가?

『日本書紀』(卷29, 天武天皇 7년(678) 是年 조)에 新羅의 送使 加良井山 등의 조난 기록이 보인다. 678년 신라 神文王이 級漁 金消勿, 大奈末 金世世 등을 일본에 보내 그해의 調를 증여하게 했는데, 加良井山이 金消勿일행을 호송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한다. 그런데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金消勿 일행은 모두 흩어져 간 곳을 알지 못하고, 加良井山은 파도에 밀려 겨우 해안에 도착했다고 한다. 하지만 金消勿 일행을 끝내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679년 正月 送使 加良井山은 일본조정으로부터 奈

12) 『日本書紀』卷24, 皇極天皇 2년(643) 4월 庚子(21일). “筑紫大宰馳驛奏曰.百濟國主兒翹岐弟王子共調使來.”

13) 『日本書紀』卷27, 天智天皇 10년(671) 12월 乙丑(3일) “十二月癸亥朔乙丑.天皇崩于近江宮.”

14) 『日本書紀』卷28, 天武天皇 元年(672) 3월 己酉(18일) “元年春三月壬辰朔己酉.遣內小七位阿曇連稻敷於筑紫.告天皇喪於郭務棕等.於是.郭務棕等咸著喪服三遍舉哀.向東稽首.”

良에 입경하라는 통지를 받는다.<sup>15)</sup>

신라사절단이 모두 실종된 가운데 送使가 임무를 대신했다. 加良井山の 이름이 암시하듯이 그는 가야계통의 사람이었고, 남해안 현지에서 일본과의 교역에 종사해 왔던 항해사였던 것으로 보인다.<sup>16)</sup>

여기서 우리는 금관가야의 외항에 대한 이근우의 지적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는 「가락국기」에서 中朝의 선박이 來泊하는 곳이 김해가 아니라 그 교외에 위치한 渡頭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內灣에 위치한 금관가야의 김해가 국제무역항이 아니라 외항이 따로 있었으며, 그곳을 부산 多大浦라고 했다.

즉 對馬島 鉦海水門에서 朴堤上이 未斯欣을 신라로 탈출시키자, 이것을 알아차린 왜국의 襄津彦이 박제상 등을 죽이고, 선단을 꾸려 신라의 踏鞴津(타타라노즈)로 가서 草羅城(양산)을 함락시킨 기록이 『日本書紀』에 보이는데, 여기서 타타라노즈가 가라국의 권역에 속하였던 多多羅(다대포)와 연관된 용어라고 한다. 즉 踏鞴津은 日本열도로 철을 수출하던 浦口였다는 것이다.<sup>17)</sup>

김해의 금관가야조차도 부산 쪽에 외항을 둘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15) 『日本書紀』卷29, 天武天皇 7年(678) 是年 “新羅送使奈末加良井山。奈末金紅世到于筑紫曰。新羅王遣級浪金消勿。大奈末金世々等貢上當年之調。仍遣臣井山送消勿等。俱逢暴風於海中。以消勿等皆散之不知所如。唯井山僅得著岸。然消勿等遂不來矣。”

『日本書紀』卷29 天武天皇 8年(679) 正月 丙戌(5일) “新羅送使加良井山。金紅世等向京。”

16) 윤선태 『752년 신라의 대일교역과 賣新羅勿解』, 『역사와 현실』 24, 1997, 65쪽 註81.

17) 이근우 「고대의 낙동강 하구와 왜」, 『역사와 세계』 41, 2012, 5~7쪽.

또한 이근우는 다음과 같이 언급 했다. “踏鞴란 제련로에 쓰는 발풀무를 뜻하는 말인데, 이를 일본에서는 ‘타타라(たたら)’라고 읽었으며 이는 제철기술과 관련된 말이다. 사철이나 철광석을 녹이기 위해서는 참나무로 된 숯을 써서 1200도 이상의 높은 열로 가열해야 하는데, 이때 강제적으로 공기를 노안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풀무이다. 현재도 일본에서는 전통적인 제련기술을 타타라 제철이라고 하며, 이는 김해에 있던 가라국의 권역에 속하였던 多多羅와 연관된 용어로 생각된다.”

는 부산-對馬島 사이의 양호한 항해여건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보다 후대의 일이지만 三浦가 조선에 의해 개방된 이후에 倭船의 釜山浦 편중은 심각했다. 『世宗實錄』 89卷, 세종 22년(1440) 4월 29일 辛丑 조를 보자.

禮曹에서 對馬州 太守 宗貞盛에게 글을 보내기를, “貴島의 여러 관인이 使送하는 배들을, 乃而浦·富山浦·鹽浦 등 세 곳에 고루 나누어 내보내기로 이미 일찍이 약속을 정하였는데, 근자에 전에 보낸 사람들이 모두 부산포에 와서 정박하니, 이 때문에 부산포에 번잡하고 분요함이 없지 아니하니 심히 불편하다. 이제부터는 한결 같이 전의 약속에 의거하여 세포구에 나누어 이르도록 하라. 만일 부산포에 여전히 중첩하여 이르면 접대를 허락하지 않겠다.”<sup>18)</sup>

과거 조선정부와 對馬島는 三浦인 乃而浦(진해 熊川)·釜山浦(富山浦)·鹽浦(울산) 등 세 곳에 고루 나누어 배를 정박시키기로 일찍이 약속을 했다. 하지만 倭人의 배들이 모두 釜山浦에만 정박했다. 조선정부는 三浦分泊을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對馬島와 부산 사이의 항로가 그만큼 편리했다.<sup>19)</sup>

倭船들은 부산으로의 접근성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들은 鹽浦(울산) 쪽으로 가는 것을 주저했다.<sup>20)</sup> 對馬島에서 울산을 갈 수는 있지만 돌아

18) 『世宗實錄』 89卷, 세종 22년(1440) 4월 29일 辛丑 조. “禮曹致書對馬州太守宗貞盛曰: 貴島諸官人使送船隻於乃而、富山、鹽浦等三處, 均分出送, 已曾定約. 近者前所送人等, 皆於富山浦到泊. 緣此富山浦不無煩擾, 甚爲未便. 自今一依前約, 三浦分到, 若於富山浦, 如前疊到, 不許接待.”

19) 무라이 쇼스케 지음·이영 옮김, 『중세 왜인의 세계』, 小花(翰林新書 37), 1995, 106쪽 참조.

20) 村井章介의 위의 책에 같은 페이지에 의하면 鹽浦(울산)에 거주하는 倭人의 숫자는 三浦 가운데 가장 적었다고 한다. 그만큼 對馬島 울산 사이의 항해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반영한다.

을 때 동북으로 흐르는 동안난류의 영향 때문에 항해가 어려워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울산에서 日本입국창구인 對馬島로의 항해는 쉽지 않다.<sup>21)</sup>

무동력선을 사용했던 전근대 시대의 항해여건은 비슷하다. 城田吉六은 박제상이 미사흔을 탈출시킨 지점인 鉏海水門을 對馬島의 북단의 鰐浦(宛尼浦)로 보고 있다.<sup>22)</sup> 鰐浦는 고대부터 부산지역과 왕래하는 중요한 津路要害之地였다. 1624년 副使로 일본에 갔던 姜弘重의 여행기(『東槎錄』)에 鰐浦가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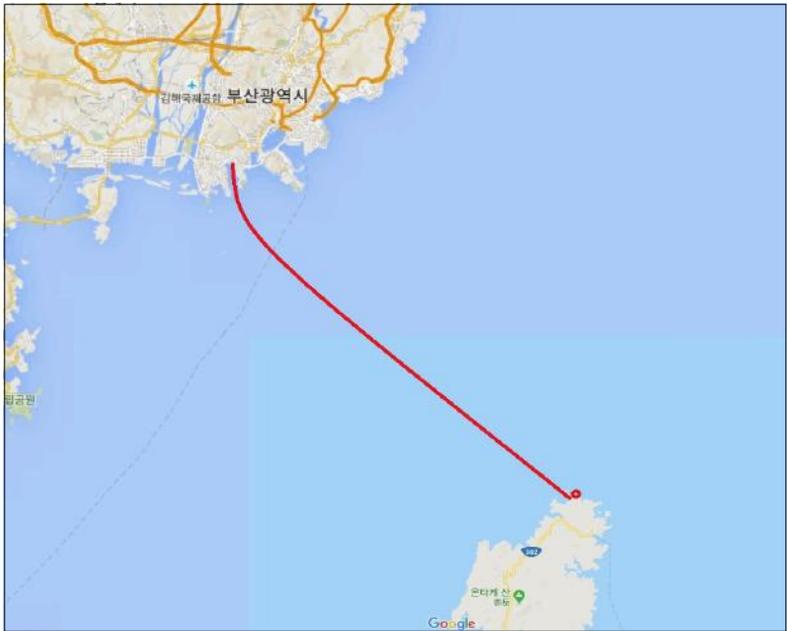
(1624년) 10월 2일 간혹 흐림. 배 위에 머물러 있었다. 날이 채 밝기 전에 倭人(鰐浦人: 필자)과 우리선원들이 모두 말하기를 “하늘이 밝게 개고 동북풍이 점점 일어나니, 일찍이 發船하기를 청합니다.” 하므로, 두세 번 上船에 통지하고 이른 아침에 돛을 달고 바다로 나아갔다. 柁樓 위에 앉은 상태에서 太宗臺를 지났다. 파도는 잔잔하고 배는 심히 빨랐다. 2백리를 지나오니 바람이 점점 약해지므로 노 젓는 것을 재촉하였는데, 그때에 동풍이 크게 일어나서 배가 거슬러 나아가지 못하였다. 날은 저물어 가는데 對馬島는 아직 멀고, 배안의 사람들은 태반이 眩氣症이 나서 쓰러져 있었다. 앞뒤에 배가 다만 火箭으로써 서로 신호하는데, 上船이 멀리 가서 火箭으로 신호가 되지 않았다. 밤은 칠혹같이 어두운데 오직 노 젓는 소리만 들릴 뿐이다. 初更 쯤에 불빛이 높은 봉우리 위에서 비치므로 倭인에게 물으니 이는 마도(對馬島)의 鰐浦라고 하였다. 배안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비로소 희색이 있었으며, 또한 등불로써 서로 신호하고 노를 재촉하여 앞으로 나아갔다. 馬島를 10리 앞두고 平調興과 讚岐州가 각기 사람을 보내어 문안하였다. 倭의 小船 6척이 배를 이끌고 앞을 인도하여 二更말에 馬島의 서쪽 鰐浦에 도착하였다.<sup>23)</sup>

21) 전 동국대학교 윤명철 교수 구두 지적.

22) 城田吉六, 『對馬万葉の旅: 鉏海の水門に宿る』, 葦書房 福岡 1985, 1~73쪽.

1624년 10월 2일 姜弘重 일행은 순풍을 만나 부산항을 출발하였다. 배가 잘 나가다가 대한해협이 한 중간에서 동풍을 만났다. 배가 노를 저어 가는데 해가 떨어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두 대의 배가 불화살을 쏘아 서로 신호하는데, 앞의 배가 멀리 가서 소통이 되지 않았다. 노와 물이 부딪치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어두운 바다 위에서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었던 시간이 흘러갔다. 암흑 속 망망대해에서 두려움만 깊어만 갔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對馬島 鰐浦의 뒷산 봉우리에서烽火가 피어올랐다. 바람이 잦아든 것을 감지한 鰐浦의 사람들이 사신단의 어려움을 예측했을 수도 있다. 그것은 암흑 속의 빛이었다. 鰐浦의 봉화를 향해 노를 저



<그림 3> 부산과 鰐浦(宛尼浦)

23) 姜弘重, 『東槎錄』, 『국역해행총재』 III,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74, 176~177쪽.

어 나아갔다. 鰐浦의小船 6척이 포구 10리 앞까지 마중 나와 배에 줄을 묶고 앞으로 끌고 가서 항구에 정박시켰다. 집안도 어려운 문제지만 燈臺의 역할을 했던烽火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이와 관련하여 『續日本後紀』(卷13, 承和 10년(843) 8월 戊寅 조) 기록을 재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承和 10년(843) 8월 戊寅에 大宰府에서 말하기를 “對馬島 上縣郡 竹敷崎를 지키는 사람들이 알려오기를 지난 정월 중순부터 이달 6일까지 신라 쪽 멀리서 북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귀를 기울여 들으면 매일 3번 울린다. 항상 오전 10시경을 기다렸다가 그 소리가 울린다. 더욱이 해질 무렵이 되면 불빛이 또한 보인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sup>24)</sup>

위 사료는 843년 對馬島 북쪽 해안의 일본 防人들의 보고이다. 그들이 筑紫의 大宰府에 알리기를 對馬島에서 바라다 보이는 신라 땅에서 매일 3번의 북소리가 들리는데, 오전 10시경에 시작되었다고 한다. 또한 해질 무렵 황혼이 찾아들면 불빛이 보인다고 했다.

그것은烽火였을 가능성이 있다. 영도의 태종대는 남해안에서 동해안으로 꺾이는 절절지점이고, 동시에 對馬島 최북단 鰐浦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다. 당시 신라와 일본은 공식적인 외교가 단절된 상태였기에, 對馬島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배를 위해 불을 밝혔다고 할 수 없다.<sup>25)</sup> 주

24) 『續日本後紀』卷13, 承和 10년(843) 8월 戊寅. “大宰府言. 對馬嶋上縣郡竹敷崎防人等申云. 從去正月中旬. 迄于今月六日. 當新羅國. 遙有鼓聲. 傾耳聽之. 每日三響. 常俟巳時. 其聲發動. 加以至于黃昏. 火更見矣. …” 서영교, 『부산 영도(絶影島), 신라왕실 목장』, 『港都釜山』 33, 2017, 110쪽.

25) 841년 장보고가 피살된 이후에도 신라 민간인들과 日本 大宰府 사이의 일부 교역은 있었다.

『續日本後紀』卷13, 承和 9년(842) 8월. “丙子, 大宰大貳. 從四位上. 藤原朝臣. 衛. 上奏四條起請. 一曰: 『新羅朝貢, 其來尚矣. 而起自聖武皇帝之代, 迄于聖朝, 不用舊例, 常懷姦心, 苞茅不貢. 寄事商賈, 窺國消息. 方今, 民窮食乏, 若有不虞, 何用防天. 望請, 新羅國人, 一切禁斷, 不入境內.』 報曰: 『德澤泊遠, 外蕃歸化, 專禁入境, 事似不仁. 宜比干流



<그림 4> 對馬島 北端에서 바라본 釜山의 불빛 柳田政則◎

로 그것은 남해안에서 북방으로 방향을 틀어 동해안으로 들어가거나 그 반대로 향하는 배들을 인도하는 燈臺 역할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활발한 교류를 했던 文武王-神文王-聖德王대에 그 불빛은 對馬島에서 부산으로 접근하는 신라나 일본사절들을 위해 밝혀졌을 수도 있다. 현재 부산 영도 태종대에 등대가 있다.

향로상 부산-對馬島 사이의 용이한 접근성, 바다를 사이에 둔 兩岸의 항해에 숙련된 인적 자원, 신라왕경과 부산 사이의 자연교통로인 東來斷層 등을 고려했을 때 통일初 신라의 對일본출입국 창구는 부산항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

來,充糧放還.商賈之輩,飛帆來著,所齋之物,任聽民間令得迴迴.了速放卻.但不得安置鴻臚以給食.”

### Ⅲ. 新羅와 日本의 외교적 접근

통일기 신라와 일본 사이의 활발한 교섭이 시작된 계기는 이러했다. 羅唐戰爭이 한창이던 때 日本에서 내란이 일어났다. 672년 1월 倭國의 제38대 天智天皇이 돌아가자 아들인 大友皇子가 王位를 계승했다. 그러자 672년 7월 天智의 동생 大海人皇子가 美濃(岐阜)에서 지방 豪族들의 지원을 받아 반란을 일으켰다.

大友皇子는 吉備와 九州 築紫에 원군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大和지역의 호족들도 大海人皇子의 편에 붙었다. 8월 瀬田橋 전투에서 패배한 大友皇子가 자결하면서 大海人皇子의 승리로 끝을 맺었다. 이듬해 大海人皇子는 飛鳥淨御原宮에서 제40대 天武天皇(673~686)으로 즉위하였다. 이 사건을 壬申亂이라고 한다.

과거에 치열한 전쟁을 했던 天智계가 일본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신라의 입장에서 호재였다. 신라에 대해 적대적인 백제인들을 주변에 대거 두고 있던 大友皇子가 제거되고, 그 반대파였던 天武가 정권을 장악했다. 등 뒤에 있는 일본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672년 11월 신라가 사절단을 日本에 파견하였다. 文武王이 天武의 新政權을 곧바로 인정한 것이다.

(天武天皇 원년[672] 11월 24일) 新羅客 金押實 등을 筑紫에서 향응을 베풀었다. 그날 (신라사절에게) 祿을 내려주었으나 각기 차이가 있었다.

(天武天皇 원년[672] 12월 15일) 船 1隻을 新羅客에게 내려주었다.

(天武天皇 원년[672] 12월 26일) 金押實 등이 파하고 귀국하였다.<sup>26)</sup>

26) 『日本書紀』卷28, 天武天皇 元年(672) 11월 辛亥(24일). “饗新羅客金押實等於筑紫. 卽日. 賜祿各有差. 12월 壬申(15일)”, “船一隻賜新羅客.” 12월 癸未(26일). “金押實等罷歸”.

672년 11월 24일 金押實이 이끄는 신라사절단이 筑紫에 도착하자 일본 조정이 饗應을 베풀었다. 또한 일본 조정은 신라사절단에게 祿을 베풀었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졌다. 12월 15일 天武는 귀국길에 오르던 신라사절단에게 특별히 배(船) 1척을 증여했다. 그 어느 시기보다 倭조정으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았던 668년 신라사절을 상기케 한다.<sup>27)</sup> 天武天皇이 文武王에게 증여한 배는 비어있지 않았을 것이다. 후일의 약속도 있었던 것 같다.

(天武天皇 2년[673] 5월 15일) 新羅가 韓阿浪(대아찬) 金承元과 阿浪 金祗山, 大舍 霜雪 등을 보내 (天武의) 騰極을 축하했다. 아울러 一吉浪 金薩儒, 韓奈末 金池山 등은 先皇의 喪을 弔하러 왔다. <一云調使> 그 送使 貴干 寶와 眞毛가 承元和 薩儒를 筑紫에 데리고 왔다.

(天武天皇 2년[673] 5월 24일) 貴干 寶 등에게 筑紫에서 향응을 베풀고, 祿을 내려주었는데 차이가 있었다. 곧 筑紫에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天武天皇 2년[673] 8월 25일) 喚賀騰極使 金承元 등 中客 이상 27人을 京으로 오게 했다.

(天武天皇 2년[673] 9월 28일) 金承元 등에게 오사카(難波)에서 향응을 베풀었다. 여러 가지 음악을 연주하고 物을 내려주었는데 차이가 있었다.

(天武天皇 2년[673] 11월 壬子朔) 金承元이 파하고 귀국하였다.<sup>28)</sup>

27) 『日本書紀』卷27, 天智天皇 7年(668) 9月 癸巳(12일) <“新羅遣沙喙級浪金東嚴等進調. 丁未(26일) “中臣內臣使沙門法弁·秦筆賜新羅上臣大角干庚信船一隻. 付東嚴等.” 庚戌(29일) “使布勢臣耳麻呂賜新羅王輪御調船一隻付東嚴等.” 冬10月, “大唐大將軍英公打滅高麗. 高麗仲牟王初建國時. 欲治千歲也. 母夫人云. 若善治國可得也. <若或本有不可得也.> 但當有七百年之治也. 今此國亡者. 當在七百年之末也.” 11月辛巳朔, “賜新羅王絹五十疋. 綿五百斤. 韋一百枚. 付金東嚴等. 賜東嚴等物各有差.”

11月 乙酉(5일) “遣小山下道守臣麻呂. 吉士小鮪於新羅. 是日金東嚴等罷歸.”  
28) 『日本書紀』卷29, 天武天皇 2年(673) 5月 己亥(15일) “新羅遣韓阿浪金承元. 阿浪金祗山. 大舍霜雪等賀騰極. 并遣一吉浪金薩儒. 韓奈末金池山等弔先皇喪 <一云調使>.”

673년 5월 15일 天武의 즉위를 축하하는 신라의 사절단이 筑紫에 도착했다. 사절단장 金承元의 관위는 大阿漚(5위)으로 진골귀족이었다. 天智의 喪을 조문하는 사절단을 별도로 보냈는데 관위가 一吉漚(7위)에 불과했다. 신라가 天武의 신정권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이로부터 3개월 후인 8월 25일 金承元 등 中客 이상 27인이 선발되었고, 나라(奈良)로 향했다. 한 달 동안 세토내해(瀬戸内海)를 항해한 신라 사절단은 9월 28일 직전에 오사카(難波)에 도착했고, 그들을 위한 향응이 배풀어졌다.

신라의 사절단장 金承元이 奈良 궁정에 들어가 天武를 만난 것은 10월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향후의 약속이 있었던 것 같다. 675년 2月 新羅 文武王이 王子 忠元을 天武에게 파견했다.

天武天皇 4년(675) 2월 이달에(是月) 新羅가 王子 忠元을 보내왔다. 大監 級漚 金比蘇, 大監 奈末 金天冲, 弟監 大麻 朴武麻, 弟監 大舍 金洛水 등을 보내 調를 바쳤다. 其送使 奈末 金風那, 奈末 金孝福이 王子 忠元과 함께 筑紫까지 왔다.

3월 戊午(14일) 金風那 등에게 筑紫에서 향응을 배풀었고, 筑紫에서 귀국했다.

4월 이달에(是月) 新羅 王子 忠元이 오사카(難波)에 도착했다.

8월 丙申(25일)에 忠元이 禮를 마치고 돌아갔는데 오사카(難波)에서 배가 출발했다.<sup>29)</sup>

---

其送使貴干寶眞毛送承元, 薩儒於筑紫. 5月 戊申(24일) “饗貴干寶等於筑紫, 賜祿各有差. 即從筑紫返于國.” 8月 戊申(25일) “喚賀騰極使金承元等中客以上廿七人於京.” 9月 庚辰(28일) “饗金承元等於難波, 奏種々樂賜物各有差.” 11月 壬子朔 “金承元罷歸之.”

29) 『日本書紀』卷29, 天武天皇 4年(675) 2月 是月 “新羅遣王子忠元, 大監級漚金比蘇, 大監奈末金天冲, 弟監大麻朴武麻, 弟監大舍金洛水等, 進調, 其送使奈末金風那, 奈末金孝福, 送王子忠元於筑紫.” 3月 戊午(14일) “饗金風那等於筑紫即自筑紫歸之.” 4月 是月

신라 왕자가 직접 사절로 파견된 예는 그다지 많지 않다. 당시 唐과 전쟁 중이던 신라는 비중 있는 인물을 보냈던 것이다.<sup>30)</sup> 忠元과 함께 日本을 방문한 大監 級滄 金比蘇, 大監 奈末 金天冲, 弟監 大麻 朴武麻, 弟監 大舍 金洛水 등은 모두 武將들이었다. 이를 본 일본 측도 羅唐戰爭이 절정에 달했음을 실감했을 것이다.

忠元이 文武王의 아들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가 신문왕대 宰相을 역임했다고 하는 『三國遺事』기록 등을 고려하면 유력한 근친왕족이 확실하다. 태종무열왕은 장남 文武王을 포함한 7명의 아들을 두었고, 忠元은 문무왕 동생 6명 가운데 한사람의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忠元은 3월 14일 경 筑紫를 떠나 瀨戶內海를 항해하여 4월 어느 날 오사카(難波)에 도착했다. 그가 그곳에서 귀국길에 오른 날이 8월 25일임을 고려하면 4개월이 넘는 시간을 나라(奈良)의 飛鳥에 머물렀던 것으로 생각된다.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 禮를 행했다는 사실을 보면 忠元이 天武天皇을 만난 자리에서 儀禮的 행위를 했던 것 같다.

당시 신라와 일본 양측의 이해는 일치하고 있었다. 唐과 전쟁을 했던 신라는 배후인 일본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려고 했고, 일본은 신라가 전쟁에서 살아남아 唐이 남쪽으로 팽창하는 것을 저지해주길 원했다.<sup>31)</sup> 이후 신라와 일본 간에 활발한 교류가 지속되었다.

羅唐戰爭 이후인 679년부터 文武王은 天武에게 대규모 물품을 증여하기 시작했고, 그 아들 神文王대 전 기간에 걸쳐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었다.

“新羅王子忠元到難波。”8月 丙申(25日) “忠元禮畢以歸之。自難波發船。”

30) 연민수외, 『역주일본서기』 3, 동북아재단, 2013, 451쪽 註109.

31) 新藏正道 『白村江の戦後の天智朝外交』 『史泉』 71, 關西大學史學·地理學會 1990, 8~26쪽.

天武天皇 8년(679) 10월 17일 甲子에 新羅가 阿滄 金項那, 沙滄 薩累生을 파견하여 朝貢하였다. 調物은 金, 銀, 鐵鼎, 錦絹布, 皮, 馬, 狗, 騾, 駱駝 등 10여 종이였다. 또한 別獻物로 天皇, 后들, 太子에게 金銀刀, 旗類를 바쳤는데 각기 많았다.<sup>32)</sup>

朱鳥 원년(686) 4월 19일 戊子에 新羅가 調를 증여한 물품을 筑柴에서 보내왔는데, 細馬 1疋, 노새(騾) 1頭, 개(犬) 2狗, 鏤金器 및 金銀, 霞錦, 綾羅, 호랑이와 표범 가죽(虎豹皮) 및 藥物類 등 100餘種이었다. 또한 신라사절인 智祥과 健勳 등이 별도로 바친 물품이 있는데 金銀, 霞錦, 綾羅, 金器, 屏風, 鞍皮, 絹布, 藥物類 등 각 60餘種이었다. 皇后와 皇太子 및 諸親王 등에게 바친 물건 등이 각기 많았다.<sup>33)</sup>

天武天皇 14년(685) 5월 26일 辛未에 … 新羅王(신문왕)이 物을 증여했다. 馬 2疋, 犬 3頭, 鸚鵡 2隻, 鵲 3隻 및 각종 寶物이었다.<sup>34)</sup>

오랜 전쟁으로 풍족하지 않았던 신라였다. 그럼에도 귀금속과 비단 등을 일본에 보냈다. 또한 天皇과 태자 및 그 후들에게도 별도의 선물을 했다. 신라가 맞서 싸웠던 唐나라는 여전히 강대국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신라는 羅唐戰爭의 재발우려에 시달렸다.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물량공세를 했던 것이다.<sup>35)</sup>

말(馬)과 개(狗) 그리고 노새(騾)와 낙타(駱駝) 등도 일본에 증여했는데, 동물들은 신라왕경에서 끌고 온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三國

32) 『日本書紀』卷29, 天武天皇 8년(679) 10월 甲子(17일) “新羅遣阿滄金項那, 沙滄薩累生朝貢也. 調物. 金銀鐵鼎. 錦絹布. 皮. 馬. 狗. 騾. 駱駝之類十餘種. 亦別獻物天皇, 々后. 太子. 貢金銀刀旗之類各有數)

33) 『日本書紀』卷29, 朱鳥 元年(686) 4월 戊子(19일) “新羅進調從筑柴貢上. 細馬一疋. 騾一頭. 犬二狗. 鏤金器. 及金銀. 霞錦. 綾羅. 虎豹皮. 及藥物之類. 并百餘種. 亦智祥. 健勳等別獻物. 金銀. 霞錦. 綾羅. 金器. 屏風. 鞍皮. 絹布. 藥物之類. 各六十餘種. 別獻皇后. 皇太子. 及諸親王等. 之物. 各有數.”

34) 『日本書紀』卷29, 天武天皇 14년(685) 5월 辛未(26일) “新羅王獻物. 馬二疋. 犬三頭. 鸚鵡二隻. 鵲二隻. 及種々寶物.”

35) 徐榮教, 『羅唐戰爭史 研究』, 아세아문화사, 2006, 321~331쪽.

史記』 권43, 김유신전을 보면 聖德王이 유신의嫡孫 允中에게 絶影山馬 1匹을 사여한 기록이 보인다. 絶影山은 현재 부산 影島가 확실하고 그곳에 신라 왕실목장이 존재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일본에 가기 위해 부산항에 들린 사절들이 영도(絶影島)에서 가축들을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sup>36)</sup> 일본의 遣新羅使들도 나라(奈良)에서 물자를 모두 가져간 것은 아니었다. 일부는 筑紫 大宰府의 창고에서 받아왔다.<sup>37)</sup>

#### IV. 日本사절단의 入京과 東萊溫泉 · 靈鷲寺

아래는 『日本書紀』에 보이는 일본의 遣新羅使와 學問僧 기록이다. 『續日本記』에도 관련 기록이 많지만 제외했다.

天武天皇 4년(675) 7월 癸酉(7일)에 小錦上 大伴連國麻呂를 大使로 삼고, 小錦下 三宅吉士入石을 副使로 삼아 新羅에 파견하였다.<sup>38)</sup>

天武天皇 4년(675) 10월 甲辰(10일) “大乙上 物部連麻呂를 大使로 삼고, 大乙中 山背直百足 小使로 삼아 新羅에 파견하였다.”<sup>39)</sup>

天武天皇 8년(679) 9월 16일 遣新羅使人 등이 돌아와 拜朝하였다.<sup>40)</sup>

天武天皇 9년(680) 11월 24일 乙未에 新羅가 沙滄 金若弼, 大奈末 金原升을 보내 調를 증여했다. 新羅語를 배운 사람 3명(則習言者三人)이 (신라사신)若弼를 따라 귀국했다.<sup>41)</sup>

36) 서영교, 「부산 영도(絶影島), 신라왕실목장」, 『港都釜山』 33, 2017.

37) 『日本書紀』 持統天皇 3년(689) 6월 20일 조.

38) 『日本書紀』 卷29, 天武天皇 4년(675) 7월 癸酉(7일) 조.

39) 『日本書紀』 卷29, 天武天皇 4년(675) 10월 甲辰(10일) 조.

40) 『日本書紀』 卷29, 天武天皇 8년(679) 9월 癸巳(16일) 조.

41) 『日本書紀』 卷29, 天武天皇 9년(680) 11월 乙未(24일) 조.

天武天皇 10년(681) 7월 4일 辛未에 小錦下 采女臣竹羅를 大使로 삼고, 當麻公楯를 小使삼아 新羅國에 파견하였다. …42)

天武天皇 13년(684) 4월 20일 辛未에 小錦下 高向臣麻呂를 大使삼고, 小山下 都努臣牛甘을 小使로 삼아 新羅에 파견하였다.43)

天武天皇 14년(685) 5월 26일 辛未에 高向朝臣麻呂, 都努朝臣牛飼 등이 신라에서 귀국했다. 또 學問僧 觀常, 雲觀이 그들과 함께 돌아왔다.44)

持統天皇 원년(687) 정월 19일 甲申에 直廣肆 田中朝臣法麻呂와 大貳守君苾田 등이 新羅에 가서 天皇(천무)의 喪을 알리도록 했다.45)

持統天皇 3년(689) 정월 8일 辛酉에 遣新羅使人 田中朝臣法麻呂 등이 新羅에서 돌아왔다.46)

持統天皇 3년(689) 6월 20일 辛丑에 筑紫大宰 粟田真人朝臣 등에게 詔를 내려, 學問僧 明聰과 觀智 등에게 新羅師友에게 보내는 餼 各 140斤을 주게 했다.47)

持統天皇 4년(690) 9월 丁酉(23일) “大唐 學問僧 智宗. 義德. 淨願. 軍丁 筑紫國 上陽咩郡 大伴部博麻가 新羅送使 大奈末 金高訓 등과 함께 筑紫로 돌아왔다.”48)

持統天皇 6년(692) 10월 11일 壬戌朔壬申에 山田史御弼務에게 廣肆를 내렸다. 전에 승려로서 新羅에서 유학했다.49)

持統天皇 6년(692) 11월 8일 … 遣新羅使인 直廣肆 息長真人老務 大貳 川內忌寸連 등에게 祿을 내렸는데 각기 차이가 있었다.50)

持統天皇 9년(695) 7월 26일 辛未에 遣新羅使인 直廣肆 小野朝

42) 『日本書紀』 卷29, 天武天皇 10年(681) 7월 辛未(4일) 조.

43) 『日本書紀』 卷29, 天武天皇 13년(684) 4월 辛未(20일) 조.

44) 『日本書紀』 卷29, 天武天皇 14년(677) 5월 辛未(26일) 조.

45) 『日本書紀』 卷30, 持統元年(687) 正月 甲申(19일) 조.

46) 『日本書紀』 卷30, 持統 3년(689) 正月 辛酉(8일) 조.

47) 『日本書紀』 卷30, 持統 3년(689) 6월 辛丑(20일) 조.

48) 『日本書紀』 卷30, 持統 4년(690) 9월 丁酉(23일) 조.

49) 『日本書紀』 卷30, 持統 6년(692) 10월 壬申(11일) 조.

50) 『日本書紀』 卷30, 持統 6년(692) 11월 戊戌(8일) 조.

臣毛野와 務大貳 伊吉連博德 등에게 物을 내렸는데 각기 차이가 있었다.

持統天皇 9년(695) 9월 6일 庚戌에 小野朝臣毛野 등에 新羅를 향해 출발했다.<sup>51)</sup>

부산에 입항한 일본사절이 신라왕경으로 향하는 移動路程은 어떠했을까. 『三國遺事』에 보이는 神文王대 新羅宰相 金忠元の 이동경로에서 그 윤각이 드러난다.<sup>52)</sup> 이하는 본고의 핵심이 되는 아래의 기록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寺中古記에 전하기를 신라 31대 神文王代 永淳 2년(683)<sup>53)</sup>에 宰相 忠元公(忠元公)이 菘山國[卽東萊縣 亦名萊山國]의 溫井에서 목욕을 하고 城(金城)으로 돌아오다가 굴정역(屈井驛) 동지야(桐旨野)에서 쉬고 있을 때였다. 어떤 사람이 매를 풀어 꿩 사냥을 하고 있는데, 매가 꿩을 쫓다가 나무 위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사냥꾼이 가서 보니 쫓긴 꿩이 屈井縣廳 우물 안에 있었는데, 우물물이 온통 핏빛이었다. 우물 속 꿩은 두 날개를 벌려 새끼 두 마리를 보호하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보고 매도 차마 꿩을 낚아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모습을 본 忠元公이 감동하여 절을 세울 만한 곳이라 여겼다. 歸京한 공이 (신문)왕에게 이 사실을 아뢰니 다음 그 현의 관청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고 그 자리에 절을 짓고는 靈鷲寺라 하였다.<sup>54)</sup>

51) 『日本書紀』 卷30, 持統 9년(695) 7월 辛未(26일)

52) 서영교, 『金春秋의 渡日路程과 外交』, 『港都釜山』 38, 2019, 92쪽, 註25.

53) 683년 12월에 弘道로 연호가 개칭되었다.

54) 『三國遺事』 卷3, 塔像4 靈鷲寺 조 “寺中古記云. 新羅眞骨第三十一主神文王代 永淳二年(683)癸未[本文云元年誤] 宰相忠元公. 菘山國[卽東萊縣 亦名萊山國]. 溫井沐浴. 還城次. 到屈井驛桐旨野駐歇. 忽見一人放鷹而逐雉. 雉飛過金岳. 杳無蹤迹. 聞鈴尋之. 到屈井縣官北井邊. 鷹坐樹上. 雉在井中. 水渾血色. 雉開兩翅. 抱二雛焉. 鷹亦如相惻隱而不敢攫也. 公見之惻然有感. 卜問此地. 云可立寺. 歸京啓於王. 移其縣於他所. 創寺於其地. 名靈鷲寺焉.”

위의 기록에서 핵심어를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① 忠元公, ② 菘山國(東萊縣), ③ 東萊溫井, ④ 屈井縣廳(울산)과 靈鷲寺, ⑤ 歸京(경주)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忠元의 이동경로는 동래→울산→경주이다.<sup>55)</sup>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忠元公은 675년 2月 新羅 文武王이 일본 天武에게 파견하여 외교의 儀典의 수위를 더욱 높인 金忠元이다. 菘山國은 一然이 지적한 바와 같이 東萊縣이다. 金忠元이 東萊(菘山)에 들러 溫泉에서 목욕을 했다고 한다. 그가 동래온천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675년 文武王의 명을 받고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부산항으로 향하다가 東萊에 들렀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646년 일본을 방문했던 金春秋와 같은 경우로 볼 수 있다.<sup>56)</sup>

『三國史記』卷8, 聖德王 11년 4월 조를 보면, “여름 4월(夏四月)에 왕이 車馬를 타고 온천에 갔다(駕幸溫水)<sup>57)</sup>.”라고 하는 기록이 보인다. 그곳이 동래온천이라면 적어도 성덕왕대에는 인근에 行宮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왕경에서 온 왕과 신하들이 온천을 하고 왕경으로 그날 돌아가기에는 먼 거리이기 때문이다.

동래온천에는 古碑片이 전하고 있었는데, 고려末 李穀(1289)은 자신의 詩에서 “浴室何年有殘碑無復存”라고 했다. 東萊溫井의 古碑는 고려말에 殘碑의 상태로 전하고 있었다. 東萊府使 李元鎮(1594-1665)도 1645년 이 婢를 보고 쓴 시에서 “王者曾休沐”이라고 하여 이 온천은 왕

55) 한기문, 『삼국유사 탐상편 민장사·영취사 조의 성격』,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36, 2015, 24쪽을 보면 그는 東萊斷層路를 認知하고 있다.

56) 『南遷日錄』中(한국사료총서 제55집) 癸亥(1803)년 四月初五日 조에서 동래현 東門의 外路 가운데 있었던 太宗臺라는 이름의 유래를 전하는 기록을 보면, 김춘추가 東萊湯泉에 휴식하러 왔다가 그곳에 머물렀기 때문이라 한다.

57) 정구복 외, 『역주삼국사기』 4, 주석편 下, 韓國情神文化研究院, 314쪽 註103을 보면 아산 溫陽으로 보고 있다. 그곳의 고려시대 지명이 溫水郡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수군은 분명히 신라시대의 지명이 아니다. 그곳보다 훨씬 수질 등급이 높고 접근성이 좋은 東萊溫泉을 두고 聖德王이 충남 온양까지 행차했다고 보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이 휴양하고 목욕했던 곳을 밝혔다.<sup>58)</sup>

1711년 동래부사 權以鎭(1688-1734)은 동래 온천을 방문하고 장문의 시를 지었다. 이 시를 분석한 梁承律은 溫井碑가 신라 聖德王 11년에 건립된 것으로 보고, 왕의 동래온천 행차와 隨駕人物에 내용에 대한 기록이 있을 것이라 했다.<sup>59)</sup>

부산항에 상륙하여 入京하려던 일본사절들도 東萊를 들러야 했을 것이다. 그들이 溫泉을 그냥 스쳐 지나갔을까? 목욕은 습관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火山이 많은 고대 일본에는 수많은 온천이 존재했으며, 倭人만큼 溫泉浴을 즐기는 사람들도 없다.

713년 일본의 각 지방에서 官撰된 『風土記』<sup>60)</sup>의 (四國) 伊豫國조에 聖德太子가 596년에 세운 「溫井碑」 내용이 필사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溫泉이 모든 생물의 病을 고치고 장수하는데 최상의 藥이라고 한다. 聖德太子는 伊予의 溫井에서 묘한 효험을 본 것에 감탄하여 碑文을 세웠다. 病을 고치는 효험이 있는 이 溫井에 몸을 담구고 겨울 햇빛을 받으며 앉아있으니 極樂이라고 했다. 5명의 천황이 나라(奈良)에서 먼 이곳까지 와서 온천을 하고 갔다고 한다.<sup>61)</sup>

58) 金相鉉, 「文獻으로 본 韓國古代 金石文」, 『文化史學』 21, 2004, 382~383쪽.

59) 梁承律, 「有懷堂 權以鎭의 新羅 溫井碑考」, 『道山學報』 8, 도산학술원, 2001.

60) 『風土記』는 713년 元明天皇의 칙명에 의해서 각 지방이 편찬한 것으로 그것에 실려 있는 신화 전설·설화는 지방이나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모습이 그대로 적혀 있다.

61) “대개 溫泉이 흐르는 불가사의한 일은 神이 통치하던 시대뿐만이 아니다. 지금 세상에서도 病으로 고민하는 여러 종류의 생물의 병을 제거하고 장수하는데 최상의 藥이다. 天皇들도 수도(奈良)에서 내려와 (四國島) 온천(伊豫(伊予)溫泉)에 행차한 것이 5번, 12대 景行天皇과 大皇后 八坂入姬命 두 사람이 한번 오고 14대 仲哀天皇과 神功皇后 두 사람이 한번 왔으며, 上宮의 聖德太子가 또 한번 왔다. 그의 侍從으로 高(句)麗의 승려 惠慈와 葛城臣 등이 따라왔다. 그때 온천 언덕(湯岡)에 碑石을 세웠다.” … 기록은 이러하다. “法興 6년(596 推古天皇 4년) 10월 별(星)이 丙辰에 있었다. 나 법왕대왕(聖德太子)과 (高句麗僧) 惠慈와 葛城臣(葛城烏那羅)은 夷興(伊予 : 현 松山市)의 마을을 소묘하면서 神의 우물을 보고 세상의 妙驗(效驗)에 감탄하며 생각한 것을 말하고 싶어 자그마한 碑文 하나를 만든다. 곰곰이 생각하니, 원래 日月은 上天에서 내리찍며 私心이 없고, 神의 溫井水은 지하에서 끊임없이 솟아난다. 축제는 이와

나라(奈良)에서 출발한 王들은 육로로 오사카(難波)까지 가서 그곳에서 배를 타고 瀬戶內海를 지나 四國섬의 현 愛媛縣 松山(伊豫)市에 상륙하였다. 500km에 상당하는 먼 거리이지만 王들의 삶에 있어서 溫泉여행은 아주 귀한 여흥의 기회였다.

조선시대 對馬島나 三浦의 倭인들이 東萊溫泉을 많이 찾았다.<sup>62)</sup> 1490년 11월 16일 對馬州太守 宗貞國은 “東萊溫泉은 그냥 보기만 하여도 병이 낫는 듯하다.”라고 했다.<sup>63)</sup> 東萊溫泉에 대한 그의 열망을 담은 표현이다. 그는 상당기간 목욕할 수 있는 허락을 조선조정으로부터 받고 매우 기뻐했다.

나라(奈良)에서 출발하여 부산에 도착해 入京하는 일본사절들은 일상생활로부터 벗어났다. 외교적 임무를 맡은 여행은 일상에서 낯선 공간으로 들어가 새로운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이었다. 그들은 합법적으로 인도된 새로운 세상을 누리려고 했을 것이다. 당시 일본과 좋은 관계를 지속하려고 했던 신라는 그들에게 東萊溫泉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

金忠元이 동래에서 복상하여 들린 곳이 울산 屈井縣廳이었다. 신묘한

절묘하게 조응해서 행해지고 백성은 안온하게 생활한다. 해가 내리쬐고 溫泉水 공급은 치우친 곳이 없어 완전히 극락과 다를 바가 없다. 꽃은 꽃밭침대로 피고 지는 것 같이 神의 溫泉水를 마시자마자 病이 고쳐진다. …”라고 쓰여 있다. 34대 舒明天皇과 王后 두 사람이 한번 다녀갔다. … 37대 齊明天皇과 38대 天智天皇과 40대 天武天皇, 세 사람이 한번 다녀갔다. 이래서 행차한 것이 5번이라는 것이다.

植垣節也 譯, 『風土記』(新編日本古典文學全集 5), 東京 小學館, 2003, 504~510쪽  
 강용자 譯, 『風土記』, 지식올만드는지식, 2012, 185~187쪽.

62) 무라이 쇼스케 지음, 이영 옮김, 『중세 왜인의 세계』, 小花(翰林新書 37), 1995, 117~118쪽.

63) 『成宗實錄』 247卷, 성종 21년(1490) 11월 16일 甲午. “日本國 對馬州太守宗貞國, 特遣國續, 來獻土宜. 其書曰: … 중략 … 東萊溫泉, 望之疾已痼枯, 不得三五十旬者, 難愈, 詔許及之者萬幸. 進上大刀二把, 練二匹, 青毛馬一匹.” 東萊의 溫泉은 바라만 보아도 벌써 病이 치유된 듯합니다. 30~50일이 아니면 낫기가 어려운 증세인데, 詔命으로 승낙해 주셨으니, 더할 수 없는 다행입니다. 大刀 2把, 練 2匹, 靑毛馬 1필을進上합니다.”

장면을 본 그는 이곳이 사찰자리로 적당하다고 생각하여 神文王에게 현청을 다른 곳에 옮기고 그곳에 절을 짓자고 했다. 靈鷲寺가 세워졌다.<sup>6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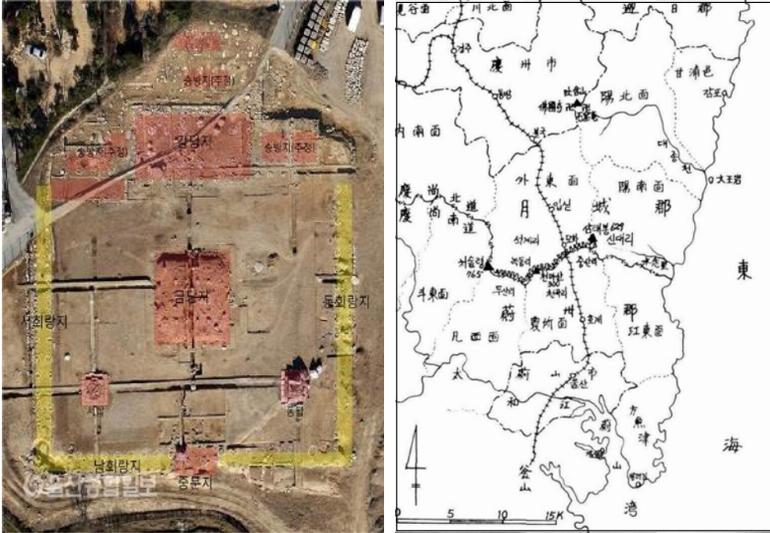
2012년 울산박물관은 5개년계획으로 발굴조사를 시행해, 2016년 12월 23일 靈鷲寺址의 발굴조사를 완료하여 가람의 전모가 드러났다. 영축사가 金堂址를 중심으로 雙塔이 위치한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 伽藍 배치임을 확인했고, 中門址, 回廊址 조사를 통해 영축사의 중심 사역 규모가 경주 感恩寺와 거의 동급임이 밝혀졌다.

무엇보다도 講堂址와 그것을 둘러싼 승방으로 추정되는 건물지들을 확인한 것이 5차 발굴에서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講堂址는 정면 7칸, 측면 4칸으로, 동서 24.5m, 남북 15m이다. 내부 367.5㎡ 이상의 규모로 佛國寺 무설전의 남북 기단 길이가 14m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영축사 강당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1~3차 조사에서 강당지 동편의 방 건물지가 확인돼 승방으로 추정했는데, 서편과 북편에서도 중복이 심한 다수의 건물지가 발견됐다. 그것은 급작스러운 증축이나 개조를 의미한다.

강당 좌우에 배치된 승방으로 추정되는 건물지는 한 변 5.2m, 강당 북편은 2.7m 크기이다. 크기와 위치상 강당 좌우 승방은 대승방, 강당북편 승방은 소승방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승방에는 높은 지위의 스님이 소승방은 그보다 낮은 지위의 스님이 수행하던 곳으로 추정하고 있다.<sup>65)</sup>

64) 靈鷲寺는 신문왕이 울주 지방민을 위무 지배하려는 의도와 영취산의 범화사상과 신앙의 연원지로서의 위상을 수렴하려고 세워졌으며 지통, 원효, 그리고 연희 등의 고승이 이곳에서 시대에 맞게 범화사상을 해석하여 왕경 사회에 영향을 끼친 사원이었다는 견해가 있다(한기문, 『삼국유사 탐상편 민장사 영취사 조의 성격』, 『신라문화재 학술발표논문집』 36, 2015).

65) 이상 靈鷲寺址 발굴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했다. 울산박물관, 『울산영축사지 발굴조사보고서 I』, 2016. 『울산종합일보』, 2017.01.13., ‘울산 영축사, 경주 감은사에 버금가는 규모(조민주기자)’.



<그림 5> 영축사 가람 배치도, 울산종합일보 조민주©

<그림 6> 정영호, 『新羅 關門城에 대한  
울산종합일보 조민주©  
小考』, 『古文化』15, 1977.

왕경과 거리가 있던 이곳에 이토록 규모가 큰 사찰을 세운 것은 무엇 때문인가. 무엇보다 講堂址의 규모는 佛國寺의 그것보다 크며, 좌우와 북편에 많은 방들이 있다.

위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지만 講堂 좌우의 방은 비교적 크고 강당 북편의 방들은 규모가 작은 대신에 숫자가 많다. 서영남이 지적한 바와 같이 벽을 돌린 방의 구조여서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구조이다.<sup>66)</sup> 거주공간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聖德王 2년(703) 7월 日本國使가 왔는데, 총 204인이었다.<sup>67)</sup>

66) 서영남, 『統一新羅式 伽藍配置의 成立과 靈鷲寺 創建』, 『文化史學』 48, 2017.

67) 『三國史記』 卷8, 聖德王 2년(703) 7월 “日本國使至, 摠二百四人.”

703년 경우 일본사절 204명이 入京했다. 적지 않은 규모이다. 필자는 靈鷲寺가 부산향에서 내려 入京하는 일본사절들의 숙박시설도 검토하고 보고 싶다.

사찰이 숙박시설로 사용된 사례는 많이 보인다. 그 가운데 몇 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고려 顯宗시기에 창건된 稷山 奉先弘慶寺는 숙박기능을 담당하여 僧侶와 행인 등에게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였다고 한다.<sup>68)</sup> 고려 初 資福寺 또한 숙박기능을 한 것으로 보인다.<sup>69)</sup> 838년에서 847년까지 중국을 여행했던 日本僧 圓仁이 가장 많이 숙박을 했던 곳이 寺院이었다.<sup>70)</sup>

일본에 사절로 다녀온 경험이 있던 金忠元은 東萊溫泉과 왕경 중간에 위치한 이곳에 숙박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神文王에게 건의하여 縣廳터에 사찰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신라와 일본 사이의 관계가 멀어진다. 聖德王대에 唐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호전되었고, 왕은 唐나라에 많은 사절을 파견하였다. 渤海의 팽창으로 唐과 신라의 이해가 맞아떨어졌던 것이다. 신라는 더 이상 배후의 안전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日本과의 관계가 점차 소원해졌고, 이윽고 722년 성덕왕은 경주남쪽 외동(毛火)에 關門城을 쌓았다. 東萊斷層路가 봉쇄되었고,<sup>71)</sup> 일본과의 외교는 냉각되었다.<sup>72)</sup>

68) 康賢子, 「高麗 顯宗代 奉先弘慶寺의 機能-『奉先弘慶寺碣記』를 중심으로-, 『史學研究』 84, 2006, 84~85쪽.

69) 한기문, 「고려시대 資福寺의 성립과 존재 양상», 『민족문화논총』 49, 2011, 279~328쪽 참조.

70) 이윽진, 「唐代 求法僧의 숙박시설 -円仁의 『入唐 求法巡禮行記』를 중심으로-, 『승실사학』 22, 2009, 231~255쪽.

71) 정영호, 「新羅 關門城에 대한 小考」, 『古文化』 15, 1977, 10쪽 참조.

72) 『三國史記』 卷8, 聖德王 21년(722) 10월. “… 築毛伐郡城, 以遮日本賊路.”

## V. 맺음말: 신라왕실과 부산항

신라는 대일외교에 부산항을 이용했다. 남쪽에서 東北北으로 흐르는 동안난류의 방향 때문에 울산에서 일본의 출입국 창구인 對馬島로의 항해는 어려웠다.

그렇지만 국내 물자 수송에 있어 신라는 왕경 인근의 울산항을 이용했다. 수로 운반의 효율성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전남 담양에 위치한 『개천사석등기』를 보면 신라 전성시대 왕경 존재했던 35개의 金入宅 가운데 하나인 池宅의 대토지가 보인다. 금입택의 소유자는 일반 진골 가문 가운데서도 극히 유력한 계층이었다. 『장흥보림사보조선사탐비』에도 田莊이 현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望水宅과 里南宅이 금 169分과 畝 1,333결의 소출량인 租 2,000斛을 희사한 기록이 보인다.

이기동은 보림사 불사에 심혈을 기울였던 長沙縣 부수 金滲宗은 長沙宅의 宅主이며, 그 宅號는 武州 長沙縣에 위치한 그의 田莊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주사낭해화상비문』에도 충남보령에 위치한 武烈王子 金仁問 가문의 토지가 보인다. 왕경 소재 대사찰의 莊園도 남해안에 있었다. 『입당구법순례행기』 847년 9월 8일 조에 “안도 가까운 동쪽에 黃龍寺의 莊園이 있다.” 라고 했다.

구백제 지역은 왕실·진골귀족·왕경의 大寺刹의 재산이 집중된 곳이다. 신라가 백제를 정복하면서 획득된 지역이고, 신라지배층들에게 재분배되었다.

그 곳에서 생산된 물자의 상당량은 서해→남해→동해를 통해 울산항에 하역되어 왕경으로 운반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가을 수확기였던 843년 음력 8월 戊寅일 저녁에 對馬島 북쪽 해안을 지키던 일본 防人들이 바다 건너편의 부산 쪽에서 불빛을 목격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續日本後紀』卷13, 承和 10년). 불빛은 일종의 燈臺로 야간에 도 항해를 가능케 하여 운송의 시간을 줄여주었다.

서영교, 『부산 영도(絶影島), 신라왕실목장』 『港都釜山』 33, 2017에서 필자는 영도가 신라왕실의 직할지임을 고증한 적이 있다. 신라가 처음으로 소유한 섬인 絶影山이 부산의 古代지명이다.

남해와 동해의 결절지점인 영도가 신라왕실의 소유였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가을 수확물을 선적할 즈음에 북풍이 불기 시작하기 때문에 선박이 남해안에서 동해안으로 북상하기 직전에 순풍을 기다려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부산항은 선박들의 중간 개류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거제도 동쪽에 도착한 선박들은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부산의 南港 쪽으로 입항하였을 것이며, 기다리다 순풍이 불면 五六島 방향으로 나아가 북상하여 울산항으로 향했을 것이다. 영도에 상주하는 왕실의 관리들이 燈臺를 관리 했을 것이며, 통일初 신라와 일본 사이의 교류가 한창일 때 그 불빛은 對馬島에서 부산으로 오는 배들의 길잡이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對馬島가 일본의 출입국 창구였고, 부산과 對馬島 사이의 항로는 접근성이 좋았다. 조선初 對馬島에 개방한 삼포(乃而浦[진해 熊川]·釜山浦[富山浦]·鹽浦[울산]) 가운데 倭船의 부산포 편중은 심각했다. 반대로 삼포 가운데 울산 염포에 거주하는 倭人 수가 가장 적었다. 이것은 울산에서 對馬島로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반영한다.

무엇보다 가야시기 이래로 부산지역은 兩岸의 항해에 숙련된 인적 자원이 존재했다. 679년 일본으로 향하던 신라 送使의 이름은 加良井山이었다. 加良이란 성씨가 암시하듯이 그는 신라국가에 포섭된 가야계였고, 누대에 걸쳐 남해안 현지에서 일본과의 교섭에 종사해왔던 항해사 집안의 자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성기 금관가야의 김해가 국제무역항이 아니라 외항이 따로 있었으며, 그것이 부산 다대포라고 한 견해가 있다. 對馬島에서 박제상이 未斯欣을 신라로 탈출시키자, 이것을 알아차린 왜인 襲津彦이 배를 타고 신라의 踏鞴津(타타라노츠)로 가서 草羅城(양산)을 함락시킨 기록이 『日本書紀』에 보이는데, 여기서 타타라노츠가 가라국의 권역에 속하였던 多多羅(다대포)이며, 즉 踏鞴津은 가야가 일본열도로 철을 수출하던 浦口였다고 한다. 금관가야도 부산에 외항을 두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신라왕실이 그 직할지인 영도(絶影山)의 관리들을 통해 부산항을 관찰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곳과 신라왕경 사이에는 ‘東萊斷層’(부산항 →동래→울산[屈井縣]→王京)이란 자연도로가 있어 접근성이 양호했다. 부산이 노포동에서 부산항까지 남북으로 긴 형태를 가진 것도 이 단층 때문이다.

## | 참고문헌 |

### 1. 사료

『日本書紀』 『續日本後紀』 『風土記』  
『三國史記』 『高麗史』 『東槎錄』 『南遷日錄』

### 2. 저서 및 논문

강용자 譯, 『風土記』, 지식올만드는지식, 2012.  
康賢子, 「高麗 顯宗代 奉先弘慶寺의 機能-『奉先弘慶寺碣記』를 중심으로-」, 『史學研究』 84, 2006.  
姜弘重, 「東槎錄」, 『국역해행총재』 III,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74.  
金相鉉, 「文獻으로 본 韓國古代 金石文」, 『文化史學』 21, 2004.  
김창석, 「삼국시기 신라 外港 의 변천과 그 배경」, 『島嶼文化』 45, 2015.  
\_\_\_\_\_, 「대의 교류를 통해 본 고대 울산 지역」, 『대의교류를 통해 본 울산』(울산대

- 국립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 학술회의), 2019.
- 무라이 쇼스케 지음·이영 옮김, 『중세 왜인의 세계』, 小花(翰林新書 37), 1995.
- 徐榮教, 『羅唐戰爭史 研究』 아세아문화사 2006.
- \_\_\_\_\_, 「부산 영도(絶影島), 신라왕실목장」, 『港都釜山』 33, 2017.
- \_\_\_\_\_, 「金春秋의 渡日路程과 外交」, 『港都釜山』 38, 2019.
- 서영남, 「統一新羅式 伽藍配置의 成立과 靈鷲寺 創建」, 『文化史學』 48, 2017.
- 梁承律, 「有懷堂 權以鎭의 新羅 溫井碑考」, 『道山學報』 8, 2001.
- 연민수外, 『역주일본서기』 3, 동북아재단, 2013.
- 윤선태, 「752년 신라의 대일교역과 賣新羅勿解」, 『역사와 현실』 24, 1997.
- 이광렬 外, 「동래 단층 중부 지역 응촌-응상 일대의 단층 지형과 지형발달」, 『한국 지형학회지』 26-1, 2019.
- 이근우, 「고대의 낙동강 하구와 왜」, 『역사와 세계』 41, 2012.
- 李道學, 「熊津都督府의 支配組織과 對日本政策」, 『白山學報』 34, 1987.
- 이유진, 「唐代 求法僧의 숙박시설 - 円仁의 『入唐 求法巡禮行記』를 중심으로-」, 『승실사학』 22, 2009.
- 정영호, 「新羅 關門城에 대한 小考」, 『古文化』 15, 1977.
- 한기문, 「고려시대 資福寺의 성립과 존재 양상」, 『민족문화논총』 49, 2011.
- \_\_\_\_\_, 「삼국유사 탐상편 민장사·영취사 조의 성격」,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6, 2015.
- 황학수 外,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일대 동래단층 연장성 확인을 위한 물리탐사 적용」, 『지질공학』 27-3, 대한지질공학회, 2017.
- 濱田耕策, 「新羅人の渡日動向-七世紀の事例-」, 『史淵』 138, 九州大學大學院 人文科學研究院, 2001.
- 城田吉六, 『對馬万葉の旅-鉦海の水門に宿る-』, 葦書房 福岡 1985.
- 植垣節也 譯, 『風土記』(新編日本古典文學全集 5), 東京 小學館, 2003.
- 新藏正道, 「白村江の戦後の天智朝外交」, 『史泉』 71, 關西大學史學·地理學會, 1990.

| Abstract |

## Silla-Japan Diplomacy and Dongnae Fault Way

Seo, Young-Kyo

Silla, which was unable to give up the efficiency of waterway transportation in receiving supplies, mainly used Ulsan Port. Unlike freight transportation, the envoy made safety a priority and used Busan Port. There was a reason. First, Tsushima Island was the immigration window of Japan. It was difficult to sail from Ulsan to Tsushima Island due to the direction of the Kurushio Current flowing from the south to the north. However, the route between Busan and Tsushima Island was stable.

There was a separate port in Geumgwan Gaya. It was a Tatara(多多羅:다대포) port in Busan.

In 843 Japanese Soldier guarding the northern coast of Tsushima Island witnessed a sparkling light toward Busan in the evening.

The lighthouse is thought to have served as a guide for ships from Tsushima Island to Busan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Silla and Japan was good. There was a reason for active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t that time. In 672, the interests of Silla and Japan matched. Silla, which was at war with Tang China, tried to eliminate uncertainty in Japan. Japan wanted Silla to be a breakwater to stop the expansion of Tang China.

The first stop by the Japanese envoy who arrived at Busan Port was Dongnae Hot Spring, and they took a rest here and stayed for a day at the Ryeongch temple in Ulsan, and headed to Silla Capital.

In 2011, excavation of the Yeongchwi temple was carried out. There were traces of many buildings that appeared to be residential spaces. I

would like to see the temple as a hotel facility for Japanese envoys. In 703, 204 Japanese envoys entered Silla. If Ulsan was a port of supplies for the Silla Kingdom, Busan was a port of diplomacy negotiating with Japan.

**Key Words :** Busan Port, Ulsan Port, Tsushima Island, Kim Chung-won, Dongnae Hot Spring, Dongnae Fault, Youngchwi Temple